

네코노아나 ~배빵지옥 5-1화 -한국어

‘여긴.... 어디지?’

오리에가 정신을 차리면 낯선 천장이 그녀를 맞이한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복부에서 형용할수 없는 고통에 나지막한 비명을 지른다.

“저라면 당분간 움직일 생각같은건 하지 않을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에는 붉은머리의 여성이 차를 우리고 있었다. 통상적인 기성품에 비해 면적이 적은 메이드복 차림을 하고 있지만 동년배 같아보이면서도 단정해보이는 품행에서 연상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당하고도 벌써 몸을 가눌 수 있다니 현대의학에 감사해야겠군요.”

오리에가 상황파악을 못해 경계하는 동안 메이드의 여성이 차를 들고 다가와 자기소개를 한다.

“토모사카 이노리. 오늘부터 당신의 세컨드입니다.”

“세컨드라고? 지하 링에서 세컨드라니 들어본적 없어. 그런 이름의 감시역이겠지!”

연짙은 기색을 역력히 내며 대꾸하지만 상대의 반응은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지하에 오시기 전엔 어딘가의 영애분이었다고... 이 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제가 보필할 예정이므로 저에 대한걸 사용인처럼 써주셔도 좋습니다.”

토모사카가 우려낸 차를 오리에의 앞으로 내놓는다.

“차를 내왔습니다. 진통작용이 있어 몸의 회복에 도움이될까하고..”

“흐응~ 사용인이라고..?”

오리에가 건네받은 차를 토모사카의 머리위로 쏟아버린다. 그러나 토모사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좋아. 뭘 수작질인지 몰라도 어울려주지. 사용인 행세하는 주제에 그런 차림으로 시중들 생각이야?”

“...의복을 정돈하고 오겠습니다.”

토모사카가 옷가짐을 추슬러 방을 나서기 직전 오리에에게 주의를 준다.

“노파심일지도 모르지만, 시설에서 나가려는 생각은 접어두시는게 좋아요.”

토모사카가 방을 나서자 오리에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한다.

‘문은 안 잠겨있어. 흥, 이런 곳에 한시라도 더 있을까보냐!’

시간이 조금 흘러, 벌써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오리에에는 계속 비슷한 복도를 맴돌뿐 전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긴 대체 뭐야? 출구는 커녕 창문도 보이지 안잖아!”

그렇게 해매던 차에 복도에서 두 그림자를 발견하면 그 중 하나는 오리에가 잘 아는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 날 이런 곳에 가두고! 어서 날 여기서 내보내!”

“입조심하시지? 흥, 아직 뻔어있을 줄 알았는데 건강해보여서 다행이군.”

총괄매니저 이세시마가 오리에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린다.

“지금은 널 신경 쓸 시간없어. 문제일으키지 말고 방으로 돌아가!”

“후후, 당신이군요. 제 전 선배씨라는건.”

이세시마의 옆에 있던 금발 롱트윈의 건방져 보이는 여자가 오리에를 업신여기는 듯한 건방진 태도를 취하며 다가온다.

“선배라고? 미안한데 난 너 같은건 본적 없거든?”

“저한테 있다구요? 허접 돼지년한테 뒤지게 쳐맞고 끌려나가던 그 처량한 모습. 당신 따위에게 후배소리 들어야하는 제 입장도 생각해주시지 않겠어요?”

“하아? 지금 시비터는거야?”

“있잖아요 매니저씨. 말 안듣는 고양이한테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 본래라면 링 바깥에서 상품끼리 싸우는건 금지지만...”

이세시마가 오리에에게 시선을 옮기자 오리에가 흠짓해 방어태세를 취한다.

“뭐야, 해볼테야?”

이세시마가 품 안에서 리모콘을 꺼내 버튼을 조작하면 오리에의 항문에 연결된 애널플러그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히, 히익! 뭐, 뭐야 이거! 히이잇..!”

“반응을 보니 이런건 익숙치 못한 모양이군, 아가씨. 용건이 끝나면 사무실에 갖다놔.”

이세시마가 유메미에게 리모콘을 던져주고 자리를 뜬다.

“거, 거기서! 당장 이걸 꺼..!”

“아하핫! 도구로 쓰이다 버려질 년이 누구한테 명령하는거예요?”

“내, 내가 도구라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질 나쁜 농담이군요. 전 곧 여기서 졸업할 몸이랑요? 당신따위랑 같을 줄 알았어요?”

‘조, 졸업..?’

“그래요. 뭐 2연승이란 조건이 있지만 전 데뷔하고 한번도 저본적 없는 진짜 슈퍼루키니까요. 당신 같은 가짜랑 다르게. 이미 제 졸업은 정해졌다는거죠.”

그때 유메미의 곁으로 링의 선수로 보이는 가루스타일의 여자 둘이 다가온다.

“유메미짱 여기 있었구나~ 곧 졸업이라고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거 아냐?”

“후후, 너희들 마침 좋은 타이밍에 왔어~. 손 좀 빌려주지 않을래? 특기잖아? 쓰레기정소하는거.”

“이게 그 쓰레기? 켓, 약해보여.”

“콧... 너희들...!”

오리에가 뭔가 대꾸하려하자 룽헤어의 여자가 익숙한 듯이 다짜고짜 오리에의 안면에 주먹을 날린다.

“어따 대고 말대꾸야! 앙?!“

‘퍼억!’

“부헛!

시설의 구석진 장소. 주위에 널린 쓰레기통이나 쌓여있는 쓰레기봉투의 산으로 보아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 같다.

(퍽! 퍼억! 빠악!)

“음!!그후음!!우게역!!”

강렬한 바이브레이터의 자극에 저항도 못하고 유메미 패거리에게 집단린치 당한 오리에가 쓰레기통에 쳐박힌다.

(과양!)



“그우음...우에에에...”

“이 돼지년이, 유메미짱은말야, 이 링의 보물이라구!”

“지금 누구한테 시비터는지 알고 있는거야?”

“너 같은 동돼지랑은 격이 다르다고!”

“카핫! 이 녀석 암태지처럼 쓰레기 퍼먹고 있어.”

유메미가 쓰레기통에 튀어나온 오리에의 엉덩이를 발로 짓밟아버린다.

“앞으론 상대를 보고 나대는게 좋을걸요? 전 선배씨. 아하하하하하!!”

오리에가 쓰레기통에서 고집어져 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온건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후였다. 전보다 더욱 처참해진 몸골에 이노리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이노리가 말없이 오리에를 주시하고 있자 오리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뭐야?”

“설마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당신을 너무 알고 있었군요.”

오리에에는 딱히 돌려줄 말이 없었기에 당신 바보죠?하는 듯한 시선으로부터 몸을 돌린다.

“이 시설, 듣기로는 해양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대형화물선을 사들여 개수했다더군요. 각 층을 잇는 사다리칸은 평소엔 격벽으로 막혀있으니 보지 못하는게 당연합니다.”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화물선이라고? 중요한 정보였지만 지금 중요한건 그게 아니었다.

“그 년 절대 용서 못해.”

“히메카와씨말인가요?”

“어떻게 아는거야?”

“연락이 왔었어요.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가라고요.”

그 년이...!

“공식기록 5전 전승, 실력뿐만 아니라 전 아키바아이돌로써 외모와 퍼포먼스 모두 수준급. 현재 링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화제의 신인이예요.”

“알게 뭐야! 너 그 매니저 할망구랑 연결되어있지? 어차피 링에 설거 그 년 조절 수 있게 시합 잡아달라했다고 전해!”

“...상관없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전승을 조건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상품이 졸업하는 걸 원치않는 매니저로써는, 만약 졌다간 터무니 없는걸 요구해올지도 모르는데요.”

“흠, 100% 컨디션의 내가 그런 녀석따위한테 질리가 없잖아... 문제는 이거야.”

오리에가 자신에게 삽입된 애널플러그의 꼬리를 잡아당긴다.

“이런 기능이 있던건 듣지 못했어! 시합 중에 그런걸 당했다간 끝장이잖아!”

“아마 그럴 일은 없을겁니다.”

망설임 없이 단언하는 토모사카에게 오리에가 되묻는다.

“난 이거 때문에 큰일이었다고! 어째서 장담하는거야?”

“간단한 일입니다. 그 기능은 이미 쓰이지 않은지 오래되었으니까요. 유즈하나씨처럼 그 기능의 존재를 모르는 선수도 많아요.”

“하지만 네 말대로 쓰지 않을 기능이었던 처음부터 이런 기능을 만들지 않았을거잖아?”

“확실히, 그 기능은 승부조작을 위해 만든 기능입니다. 초기의 지하투기시합은 승부조작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빈번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지하복싱은 예상 이상으로 흥행해버렸죠. 지금은 평범하게 복표를 발행하는 쪽이 사업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조작으로 링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보다 그쪽 낫다는건가? 어느정도 납득되는 이야기야.

하지만, 이 이야기 뭔가 걸리는데...

“이후 일정은 전부 비워두시죠. 오늘 저녁, 그녀의 시합이 있을 예정입니다.”